

신임 회장에 林漢鍾박사 선임

건협 임시대의원총회서, 만장일치로



건협 임시대의원 총회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5월6일 11시, 서교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林漢鍾 부회장(고려의대 교수·의학박사)을 선임했다.

전임 崔振學 회장의 사임으로 인해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신임회장 선출방법에 대한 대의원들의 토의 결과에 따라 沈雲澤 의장을 포함한 5명의 전형위원이 선임되어 林漢鍾 부회장을 신임회장에 추대했고 참석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林부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林회장은 '5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의대 교수, 대

한기생충학회장, 고려대 열대풍토병 연구소장, WHO전문자문위원, 한국농촌의학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시지부장 및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있다.

신임 林회장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과거 기생충관리 사업 속에서 역경을 헤쳐 나아갔던 기협정신』을 되새겨 전 직원이 일치단결·화합해서 국민 건강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보다 건강한 사회·질병없는 건강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林漢鍾 會長 當選所感



먼저 전임 최진학 회장님의 병환으로 잔여 임기동안 회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회장으로 뽑아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로서는 참으로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1964년 기생충 박멸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설립된 이래 금년으로 만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기생충박멸협회가 설립되고 한국건강관리협회로 탈바꿈하여 성장·발전한 이래 기구도 커지고 업무량도 그만큼 많아져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생충 감염률은 발족 후 95% 이상이던 것이 30년만에 3.8%의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건강관리협회 사업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디다만, 과거 어려웠던 시절의 고난을 거울삼아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일해 나아갈 작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로매진하려

면 과거 역경을 헤쳐 나아갔던 “기협정신”을 되새겨서 일치단결, 화합해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사업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정도관리와 검사기능을 철저히 하고 예방의학적 차원의 홍보를 활발히 하여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국민 건강 교육도 높은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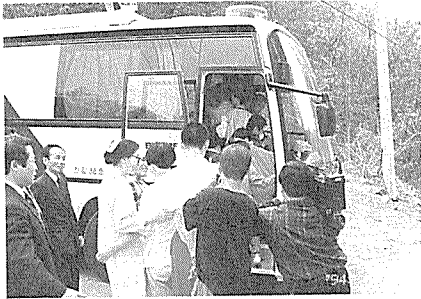
지금은 바야흐로 지구촌이라 일컬을 정도로 국제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한 기생충사업을 후진국에 전수할 수 있도록 안목을 넓혀 세계인의 건강도 염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기생충 없는 건강한 사회, 더 나아가 질병 없는 건강한 세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작정이며, 이것이 곧 저의 희망입니다. 다시한번 저를 뽑아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언론계 여러분의 아낌없는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1994. 5. 6.

林 漢 鍾

건협 경기지부, 해인원 정박아 무료 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가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정박아에 대한 무료 검진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협 경기지부는 4월 보건의 달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해인원 및 인덕학교

KBS-TV “전국은 지금”에 방영(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소재) 수용원생 150여명에 대한 건강검사를 지난 4월7일에 실시했다.

건협 경기지부는 이날 특수 이동 검진 차량을 동원, 이들 수용원생에 대한 진찰·혈압·소변·빈혈·B형간염·심전도·혈액형·위장·초음파·기생충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매년 이와 같은 환원사업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부의 이번 무료검사는, 지난 4월9일 KBS-TV “전국은 지금”에 녹화 방영되기도 했다.

중국 보건위생부 직원 내협

지부 검사시설 등 견학

중국 보건위생부 직원 4명이 지난 4월27일, 28일 양일간 건협을 방문했다.

건협의 건강검사 및 기생충 관리 현황을 견학하고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해 건협을 방문한 이들은 이날, 건협 운영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건협 서울지부 의원 검사시설을 견학했다.

이들은 또 건협 경기지부, 대전·충남지부를 방문해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건협 지부의 활동을 돌아보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건강검사

건협 경기지부서 오는 6월30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12일에 시작된 의회의원 건강진단은 오는 6월30일까지 계속되며, 총 검사대상 인원은 117명이다.

KBS-2TV “무엇이든 전화상담” 제작 참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KBS-2TV의 “무엇이든 전화상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두시간 동안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종 질병 및 건강에 관한 상담을 받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건협은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의 제작에 동참하여 매주 수요일에 선착순 40여명에 대한 가두 무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이날의 건강검사 결과는 토요일 방송 시에 출연한 전문가로부터 상담과 조언을 받게 된다.

또 건협은 토요일 방송 때에 전화로

건협, 매주 가두 무료검사와 쿠폰 증정 건강상담을 의뢰해 오는 시청자들에게 무료 건강검사 쿠폰을 증정하는데, 이 쿠폰을 가지고 건협 각 시도지부를 방문하면 어디서나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쿠폰으로 받을 수 있는 검사 종목은 기초·소변·간기능·심장기능·신장기능·염증성질환·혈장질환·당뇨병 검사 등으로 총 40여 종목에 이른다.

지난 5월7일 첫 방영된 이 프로그램과 무료검사는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 1년간 이 프로그램과 무료검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매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가두 무료검사의 장소 및 시간은 TV를 통해 예고되며 매주 월요일에 건협 서울시지부에서 전화로 예약을 받는다.(전화 601-7164)

고승구 소장 등에 보사부장관 표창

보건계의 날에 직원 표창 받아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고승구 소장을 비롯한 지부 직원들이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에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사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시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박준영(대구지부 사업과장)
- 백승현(경기지부 대리)
- 〈도지사 및 시장 표창〉
- 정상준(경기지부 차장)
- 송호진(경기지부관리의사)
- 윤달식(부산지부 홍보과장)
- 이정탁(대전·충남지부 대리)
- 최상철(부산지부 임상병리사)
- 공우현(전북지부 대리)

〈보건사회부장관 표창〉

- 고승구(제주도지부 검사소장)